

서귀포 시간당 비 120mm... 도심곳곳 침수

제주지역 관측사상 최고 1일 하루 191mm 집중호우

1일 오후 서귀포시 지역에 시간당 1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지 주택과 도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이 날 오후 3~4시 사이에 서귀포시에는 시간당 120.7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는 제주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록이다. 전국적으로도 1998년 8월 6일 강화에서 기록된 시간당 123.5mm 다음으로 많은 강수량이다.

이전 제주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2016년 10월 5일 116.7mm(서귀포), 1927년 9월 11일 105.0mm(제주), 1981년 8월 10일 101.0mm(성산), 1986년 8월 18일 100.2mm(제주) 순이었다.

이 날 비는 오전 제주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오후 1시50분 호우경보로 대체되며 4시쯤까지 단시간에 집중됐다. 1일 강수량은 서귀포 191.0mm를 비롯해 신례 182.0mm, 강정 138.5mm, 태평센터 126.5mm를 기록했다. 제주는 9.5mm, 성산 51.6mm, 고산 18.6mm로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컸다. 사제비와 윗세오름에는 각각 246.5mm, 130.0mm의 비가 내렸다.

오후에 제주 남부에 호우경보가 내

리지면서 서귀포시는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서귀포소방서는 풍수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안전조치와 배수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남짓 사이에 쏟아진 비로 빗물을 감당하지 못한 도로변 하수구가 역류하며 빗물이 주택과 상가 지하로 유입돼 침수됐다는 신고가 서귀포시에 30여건,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20여건 접수돼 곳곳에서 배수작업이 이뤄졌다.

서홍동 소재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배수작업이 오후 7시까지

이여지기도 했다. 주차장 입구에는 배수로가 설치돼 있었지만, 나뭇잎과 토사 등으로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하로 물이 유입됐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 도로를 덮쳐우면서 주차장 입구가 도로보다 낮아졌다"며 "서귀포시에서 아파트 주변으로 배수로를 설치했지만 지대가 낮아 이번엔 물이 더 많이 유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귀포 도심 곳곳 도로도 침수돼 차량 통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서귀포시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하례대구 사이

도로가 침수돼 왕복 4차선 중 2차선이 3시20분쯤까지 30분 넘게 통제됐다. 서귀포신시가지와 비석거리, 천제연폭포 인근, 신시가지 도로 일부 구간도 침수로 한때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후 3시 10분에는 솜반천 사거리에서 버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소방당국에 의해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오후 3시 2분에는 서귀동 서문로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미숙·조흥준기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1일 침수된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흥준기자



“해병대 전우여...” 지난 1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해병촌 탐에서 열린 제68주년 인천상륙작전 출정기념 ‘제주 해병대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3~4기 참전 용사들이 6·25전쟁 당시 순직한 전우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소형어선 선원 복지사각지대”

좌민석 책임연구원 어선원 고용방안 등 정책 제언

제주도내 20t 미만 어선에서 일하고 선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 법령 부재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어선원의 고용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좌 연구원은 현행법상 총 톤수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20t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 되어 있다며 선원법 적용을 받는 20t 이상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 간 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태파악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t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사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짧은 인력들의 수산업 종사 기회를 만들어 어선원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어선원 없이도 선원 자체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원화된 체제에서 연근해 어선원의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단일화 해야 할 필요 있다고 했다. 고대모기자

목사 해임 소송으로 교회 폐쇄... 신도들 어찌나

해임된 전 담임목사 승소로 지위회복 집도 요구 재단 측 교회 운영 곤란하다며 교회·부지 폐쇄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서귀포 소재 모 교회가 전 담임 목사의 소송 건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고 건물을 폐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모 교회를 운영하는 모 재단은 전 담임목사인 A 목사가 제기한 법적소송으로 인해 교회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교회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 및 주일학교

와 새벽기도회 등이 중단됐고, 교회가 운영하는 재단 소유 부지와 교회 내·외부 출입도 전면 통제됐다. 현재 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사건 재항고 가 진행 중이다.

교회 내부는 작년 10월말 교회 담임목사인 A 목사가 재단에 의해 해임되면서부터 시작했다. 일부 교인들은 재단에 맞서 집단행동을 시작했고, 교회

가 아닌 다른 장소를 마련해 A 목사와 함께 떠돌이 예배를 하기도 했다.

A 목사 역시 ‘해임 조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담임목사의 지위 보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A 목사는 지난달 23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담임목사의 지위를 다시 회복, 다음 주인 9월 2일부터 교회에서 목회를 집도하겠다고 재단 측에 전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지난달 29일 교회건물을 폐쇄하고 교회 운영을 중단, 교회 신도들에게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권하고 있는 상태다. 조흥준기자 chi@ihalla.com

제주씨그랜드센터

귀어·귀촌 교육생 모집

해양수산부 지정 제주대학교 부설기관인 제주씨그랜드센터가 3일부터 14일까지 ‘2018 귀어·귀촌어거 어촌정착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10월 4~5일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소재 수산업경영인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센터는 제주에서 귀어·귀촌인들이 조기 정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현장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제주도내 수산업 현황 및 고용실태, 제주전통수산업의 이해, 수산업경영인 선정 절차 및 지원 실태, 귀어·귀촌 정책의 이해 및 성공 사례, 어촌현장견학(해양수산연구원·양식장·수산물가공업체) 등이다.

참가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www.jejusg.or.kr)에서 교육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이메일(jejusg@jejunu.ac.kr) 또는 팩시밀리(064-751-3435)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센터 사무국 064)754-3494, 3497.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녹지병원 운명 결정 도민 200명 선정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결정할 속의형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이 선정됐다.

녹지국제병원 속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도민참여단 모집과 속의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확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속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민 참여단은 지난달 24~31일까지 모집했으며 규모는 200여명이다. 도민 참여단은 지난달 15~22일 3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율을 맞춰 선정됐다.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는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속의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해 양측의 주장을 도민참여단에 설명할 예정이다. 양측은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속의프로그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도민참여단은 16일 상호토론에 이어 청구인 및 사업자 측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고, 각자 17일~10월2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속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0월 3일 전체 토론회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갑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가 설치되고 체험형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

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

무가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유치원, 초·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제주지역은 유치원 56대, 초·특수학교 47대 등 총 103대에 3500만원이 지원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8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지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이 제품은 2017년 7월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정심의 심의번호 2017-04160079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